

안녕하세요?

초록이 짙어지고, 장마가 시작되는 6월입니다.

여름 햇살이 점점 뜨거워지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치기 쉬운 시기입니다.

간단한 손 운동이나 실내 스트레칭, 시원한 음료 한 잔, 창밖의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는 조용한 시간도 지친 마음을 다독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.

6월을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을 돕겠습니다.

보호자분들도 장마와 더위 속에서도, 자신을 돌보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.

작은 쉼이 큰 활력이 되는 6월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.

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하루 되세요 ~~

- 늘푸른소망요양원 직원 일동

